

우리나라 都市 女學生의 初經에 關한 調查研究

延世大學校 醫科大學 豫防醫學教室

<指導 金 命 鎬 教授>

南 澤 昇·李 元 德

—Abstract—

A Survey on Menarche of School Girls in Seoul and Taegu Area

Taik Sung Nam, Won Duk Lee

Dept. of Preventive Medicine, Medical College, Yonsei Univ.

(Directed by Professor. Myung Ho Kim)

It is clearly defined through a number of authoritative studies that the age of menarche influenced by the various combined factocs such as nutrition status, physical status, physical growth and development status, socio-economic status, locality, culture, education level, climate, race heredity etc.

In order to obtain statistical data regarding the menarche of Korean school girls, anthors investigated on 4207 middle school girls and 703 woman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Teagu during the period of September 10 to 30, 1973 and the result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1. The rates of menses experience by years were 18.2% in the age group of 12 years girls, 31.9% in 13 years, 64.6% in 14 years, 89.8% in 15 years, 98.1% in 16 years respectively.
2. The average age of menarche for the 2504 school girls who were born during the yrar of 1957-1961 is 13.4 years with the rang of 9 years to 16 years. And the most frequent age of menarche is 13 years.
3. The average age of menarche for the 703 woman college students who were born during the year of 1950-1954 is 14.3 years with the rang of 9 years to 18 years. And the most frequent age of menarche is 13 years.
4. The appearance of menarche is most common in August (20.7%) for the group who were born during the year of 1957-1961 and most rear in November (4.2%). And it is also most common in August (19.9%) for the group who were born puring the year of 1950-1954 but most rear in June (3.4%).

I. 緒 論

初期年齡은 여러要因에 依하여 相異하며 初潮年齡에 作用하는 因子로서는 氣候, 環境, 教育程度, 種族, 遺傳, 生活狀態, 體質, 營養, 職業, 居住地域等이 密接한 關係 있음은 이미 많은 研究에서 指適된 事實이다. 이

分野에 있어서의 研究業績으로는 De Lee⁵⁾의 初潮의 氣候와의 關係, 山崎⁶⁾의 種族과 初潮關係 川越⁷⁾의 初潮와 地域과의 關係, 佐佐木⁸⁾의 戰爭과 初潮關係, 安藤⁹⁾의 社會的地位와 生活狀態와 初潮와의 關係에 關한 研究等 許多하게 있다. 韓國人을 對象으로한 研究調查로는 1923년에 우리나라 女學生을 對象으로한 李¹⁾의 成績 1935년에 女學生을 對象으로 初潮와 地理的關係에

對한 朴²⁾의 成績, 1962년에 女學生 13,727名을 包含한 韓國女性의 月經에 關한 金³⁾의 成績, 1968년에 權⁴⁾等에 依한 우리나라 女學生의 月經에 關한 研究等이 代表的이다.

이러한 研究業績을 綜合하여 보면 月經發現의 遲速은 여러가지 條件에 依하여 左右되나 特히 人種, 個人의 素質, 發育時의 生活環境 三者가 큰 要素라 할 수 있겠으며 보다 具體的으로는 다음과 같이 關係되는 要件을 整理할 수 있다. 1) 榮養이 좋으면 早發, 2) 體質 強健하면 早發 3) 發育이 좋으면 早發 4) 知能이 높으면 早發 5) 上流社會에서 早發 6) 都市居住者가 早發 7) 溫暖地方에서 早發 8) 性的刺戟에 依해서 早發 9) 年히 早發傾向 10) 就職에 依해 遲發 11) 母親早發이면 딸도 早發 12) 多血性女子에서 早發

一般的으로 初潮에 미치는 因子關係를 分明히 說明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 理由는 單一因子가 아닌 多因子의 複合의 作用이 關聯되기 때문이다.

著者は 6.25事變이 일어난 1950年을 分峽點으로 하여 일어난 社會, 經濟, 文化的 急激한 變化들이 우리나라 女學生들의 初潮年齡에 어떻게 影響을 가져 왔는지를 觀察하기 爲한 調査를 實施하여 얻은 結果를 報告하고자 한다.

Ⅱ. 調査對象 및 方法

A. 調査對象

서울特別市에 位置하는 3個의 任意選定한 女子中學校

1.2.3學年 學生 2,618名과 大邱市에 位置하는 2個의 任意選定한 女子中學校 1.2.3學年 學生 1,589名을 合하여 總 女中學生 4,207名과 서울特別市에 位置하는 1個 女子大學의 在學生 703名을 調査 對象으로 하였다[Table 1].

B. 調査方法

1973年 9月 10日부터 9月 30日까지 各 調査 對象學校를 面接要員이 直接 訪問하여 미리 準備한 設問書를 授業時間을 利用 各 學級 教室에서 對象學生에게 配付하고 面接要員 指導下에 學生이 直接 該當欄을 記入케 하여 設問紙를 回收하여後 集計하였다.

Ⅲ. 調査成績 및 考案

A. 月經經驗

1. 女子中學生의 月經經驗

女子中學生에 對한 月經經驗 與否를 보면 서울地域 女中學校 學生에 있어서는 調査對象者의 65.5%(1,665名)이 月經 經驗을 가지고 있었으며, 年齡別로 初經 有經驗率을 보면 16歲學生에 있어서는 97.9%가 有經驗이었으며, 15歲學生에 있어서는 89.7%, 14歲에 있어서는 63.8%, 12歲에 있어서는 23.0%가 各各 初經 有經驗者이었다. 한편 大邱地域 女中學校의 學生에 있어서는 初經 有經驗 學生은 調査對象의 53.2%이었다. 이를 年齡別로 보면 16歲學生에 있어서는 100.0%, 15歲에 있어서는 90.0%, 14歲에 있어서는 65.7%, 13歲에 있어서는

Table 1. Number of Students Surveyed by Educational Level Area and Year of Birth

Year of Birth	Area	Education Level (Age)	Number of Middle School Girl			Number of College Student
			Seoul	Taegu	Total	Seoul
1950		23	—	—	—	95
1951		22	—	—	—	101
1952		21	—	—	—	187
1953		20	—	—	—	181
1954		19	—	—	—	139
1975		16	340	31	371	—
1958		15	677	320	997	—
1959		14	698	501	1,199	—
1960		13	712	577	1,289	—
1961		12	191	160	351	—
Total			2,618	1,589	4,207	703

Table 2. Number of Students Experienced Menarche by Education Level, Area and Age

Age	Status	Middle School Girl						College Student	
		Seoul		Taegu		Total		Seoul	
		No.	%	No.	%	No.	%	No.	%
23		—	—	—	—	—	—	95	100.0
22		—	—	—	—	—	—	101	100.0
21		—	—	—	—	—	—	187	100.0
20		—	—	—	—	—	—	181	100.0
19		—	—	—	—	—	—	139	100.0
16		333	97.9	31	100.0	364	98.1	—	—
15		607	89.7	288	90.0	895	89.8	—	—
14		445	63.8	329	65.7	774	64.6	—	—
13		234	32.9	177	30.7	411	31.9	—	—
12		44	23.0	20	12.5	64	18.2	—	—
Total		1,663	63.5	845	53.2	2,508	59.6	703	100.0
Number of Student Surveyed		2,618	100.0	1,589	100.0	4,207	100.0	703	100.0

30.7%, 12歲에 있어서는 12.5%가 各各 初經 有經驗者였다. 또한 서울과 大邱地域을 合친 總對象者에 있어서의 初經有經驗率은 59.6%이었다. [Table 2]

이와 같이 같은 年齡層에 있는 女學生에 있어서 서울과 大邱의 地域에 따라 初經有經驗率이 63.3% 對 53.2와 같이 相當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음은 初經遲速에 影響을 미치는 여러가지 因子中 都市居住者의 早發傾向, 性的刺戟에 依한 早發, 上流社會에서 早發等を 考慮할 수 있겠으며 特히 低年齡에 있어서 地域間에 差가 큰은 興味 있는 現象이라 할 수 있겠다.

2. 女子大學生의 月經經驗

女子大學生에 있어서의 月經經驗與否를 보면 各年齡層 共히 有經率 100.0%를 나타내고 있다. 勿論 703名 이란 調査對象이 많지 않고 大學生이라는 點으로 미루워 無月經의 素地는 적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設名記載에 있어서 心理的 負擔感에서 오는 反應現象으로 有經驗을 擇한 學生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이點에 對하여는 앞으로 보다 具體的인 研究調査가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Table 2).

B. 初潮年齡

1. 女子中學生의 初潮年齡

女子中學生의 初潮年齡은 서울과 大邱間의 地域의 差 없이 다 같이 初潮平均年齡은 13.4年이었다. 또한 가장 빠른 年齡은 9歲였으며, 늦은 年齡은 調査時點에 있어

서 16歲이었으며 가장 많은 年齡은 13歲로서 全體의 40.0%를 占하고 있었다(Table 3). 이러한 成績을 權等⁴⁾의 1968年에 調査 報告한 우리나라 서울 女學生의 平均初潮年齡(14.3年), 가장 빠른 年齡(11歲), 가장 늦은 年齡(19歲), 가장 많은 年齡(14歲:32.5%)에 比하여 顯著한 早發傾向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差異는 勿論 調査對象群의 差도 있겠지만 6.25 動亂이 發生한 1950年後의 社會 經濟混亂을 結친후 1955年頃부터 經濟復興氣運과 社會安全性 增大로 國民生活에 安定을 가져오고 文化的 發展等이 影響을 주었을 것으로 思料된다.

2. 女大生の 初潮年齡

女子大學生의 初潮年齡은 14.3歲였으며 가장 빠른 年齡은 9歲였고, 늦은 年齡은 18歲였으며 가장 많은 年齡은 14歲로서 全體의 28.7%를 占하고 있었다(Table 3)

이 成績은 앞서 比較한 權等⁴⁾의 報告成績과 比較할 때 가장 빠른 年齡에 있어서 2年 앞선 것을 除外하고는 같은 傾向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李¹⁾의 韓國女學生을 對象으로한 初潮年齡 15.0年, 朴²⁾의 14.9年보다 빠르다. 이와 같은 差異는 調査 對象者에 對한 時代의 差에서 오는 生活環境, 文化的 經濟的發展等이 作用하였을 것으로 思料된다.

3. 出生年度와 初潮年齡關係

1957년부터 1961년까지 期間中에 出生한 女子中學生 2504名의 初潮平均年齡은 13.4年이고, 가장 빠른 年齡

Table 3. Age Distribution of Menarche by Education Level and Area

Age of Menarche	Status	Middle School Girl						College Student	
		Seoul		Taegu		Total		Seoul	
		No.	%	No.	%	No.	%	No.	%
9		9	0.4	3	0.4	9	0.4	2	0.2
10		31	1.9	8	1.0	39	1.6	6	0.9
11		93	5.6	78	9.3	171	6.8	10	1.4
12		451	27.1	210	25.0	661	26.4	36	5.1
13		649	39.0	353	42.0	1,002	40.0	139	19.8
14		355	21.3	157	18.7	512	20.4	202	28.7
15		78	4.7	31	3.7	109	4.4	178	25.3
16		—	—	1	0.1	1	0.0	90	12.8
17		—	—	—	—	—	—	32	4.6
18		—	—	—	—	—	—	8	1.1
Total		1,663	100.0	841	100.0	2,504	100.0	703	100.0
M(Year)		13.4		13.4		13.4		14.3	
S.E		0.03		0.04		0.03		0.05	

Table 4. Age of Menarche by Educational Level and Year of Birth

Year of Birth	Age	Age of Menarche										N	M (Year)	S.E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Middle School Girl	1957	—	1	9	61	115	128	45	1	—	—	360	14.0	0.05
	1958	—	9	36	135	355	296	64	—	—	—	895	13.8	0.03
	1959	—	11	50	227	398	88	—	—	—	—	774	13.4	0.04
	1960	7	14	54	202	134	—	—	—	—	—	411	12.6	0.07
	1961	2	4	22	36	—	—	—	—	—	—	64	12.0	0.10
Total	(%)	9 (0.4)	39 (1.6)	171 (6.8)	661 (26.4)	1,002 (40.0)	512 (20.4)	109 (4.4)	1 (0.0)	—	—	2,504 (100.0)	13.4	0.04
College Student	1950	—	—	—	6	15	23	26	15	8	2	95	14.7	0.15
	1951	—	—	3	5	21	25	20	19	5	3	101	14.5	0.17
	1952	1	1	5	11	37	49	54	20	9	—	187	14.2	0.10
	1953	1	2	2	9	39	56	44	21	6	1	181	14.2	0.10
	1954	—	3	0	5	27	49	34	15	4	2	139	14.3	0.11
Total	(%)	2 (0.2)	6 (0.9)	10 (1.4)	36 (5.1)	139 (16.8)	202 (28.7)	178 (25.3)	90 (12.8)	32 (4.6)	8 (1.1)	703 (100.0)	14.3	0.05

은 9歲, 가장 늦은 年齡은 16歲, 가장 많은 年齡은 13歲 (40.0%)였으며 1950년부터 1954년까지 期間中에 出生한 女子大學生 706名의 初潮平均 年齡은 14.3年이고 가장 빠른 年齡은 9歲, 가장 늦은 年齡은 18歲, 가장 많은 年齡은 14歲 (28.7%)이었다.

이와같은 1957~1961年度生 女中學生과 1950~1954年度生 女子大學生間에 나타난 初潮年齡의 顯著한 差異는 時代的 變化, 文化 經濟的 要因等 여러가지를 思料할 수 있겠으나 1950~1954年度生 女子大學生이 6.25動亂中에 出生하였거나 動亂中의 混亂中에 乳兒期를 經過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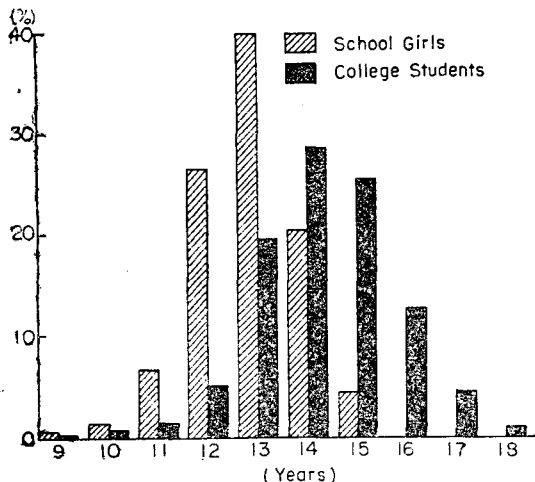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Age of Menarche between the Group of School Girls and Women College Students

였음을考慮할 때 1957~1961年度生의 社會安寧과 經濟的發展時期에 出生하여 乳兒期를 지낸 女中學生들에 比하여 自然 營養이 좋지 못하였을 것이며 發育도 不振하였을 것을 推測할 수 있다. 佐佐木⁸⁾의 條二次 世界大戰으로 因해 日本女性의 初潮進發에 미친 影響에 對한 統計的考察에서 報告한 바와 같이 社會混亂이 女性의 初潮年齡에 影響을 줄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現象이라고 思料된다(Tab. 4. Fig. 1).

C. 初潮와 季節關係

初潮出現의 時期를 月別, 季節別로 分類하여 보면 女中學生에 있어서 8月이 20.7%(519名)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9月과 12月이 各各 9.3%, 9.2%로 많았으며, 가장 적은 달은 11月(4.2%)이었다. 季節別로는 夏節(35.7%)이 가장 높고, 다음은 冬節(24.9%), 春節

(20.8%), 秋節(18.8%)의 順이었다. 한편 女大學生에 있어서도 8月이 19.9%(134名)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12月(8.6%)였으며 가장 적은 달은 6月(3.4%)이었다. 또한 季節別로는 冬節(30.7%)과 夏節(30.2%)이 거의 같은 率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春節(20.5%), 秋節(18.6%)의 順이었다(Tab. 5, Fig 2).

이와 같은 初潮의 季節關係 成績은 金⁹⁾의 調査 成績에 나타난 가장 많은 달 4月(15.1%), 가장 적은 달 10月(3.8%), 가장 많은 季節은 春節(34.5%) 다음이 夏節(27.2%)와 많은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女子中學生이나 女子大學生에 있어서 共히 8月과 12月이 많은 달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學校의 夏季放學과 冬季放學과 一致하고 있음은 學業에 시달리다 放學으로 오는 解放感과 放學 期間中에 있어서의 異性交際의 機會增大等 特히 夏季의 바캉스等 刺戟的 要因에의 露出 增大가 原因될 수 있겠다고 生覺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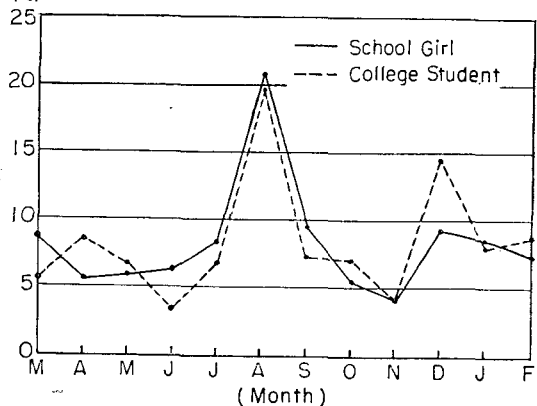


Fig. 2. Appearance of Menarche by Month

Table 5 Appearance of Menarche by Season and Education Level

Education Level	Season	Spring			Summer			Autumm			Winter			Total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Midelle School Girl	No.	216	146	153	166	209	519	233	132	105	230	213	182	2,504 100.0
	%	8.6	5.8	6.1	6.6	8.4	20.7	9.3	5.3	4.2	9.2	8.5	7.3	
	No.	515			894			470			625			
	%	20.6			35.7			18.8			24.9			
College Student	No.	35	58	45	23	46	134	50	47	28	98	54	55	673 100.0
	%	5.2	8.6	6.7	3.4	6.8	19.9	7.4	7.0	4.2	14.6	8.0	8.2	
	No.	138			203			125			207			
	%	20.5			30.2			18.6			30.7			

이에 대하여서는 보다 細密한 調査가 必要하리라고 思料된다.

Ⅳ. 結 論

1973年 9月 10일부터 9月 30일까지 20日間에 걸쳐 서울特別市와 大邱市에 所在하는 5個女子中學校學生 4207名과 서울特別市에 所在하는 女子大學 學生 703名에 對하여 初潮에 關한 設問調査를 實施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年齡別 初潮有經率は 12歲女學生에 있어서 18.2% 13歲女學生에 있어서 31.9%, 14歲女學生에 있어서 64.6%, 15歲女學生에 있어서 89.8%, 16歲女學生에 있어서 98.1%이었다.

2. 1957~1961年 期間中 出生한 女子中學生 2504名の 初潮平均年齡은 13.4年이었으며 가장 빠른 年齡은 9歲, 가장 늦은 年齡은 16歲였고 가장 많은 年齡은 13歲이었다.

3. 1950~1954年 期間中 出生한 女子大學生 703名에 있어서의 初潮平均年齡은 14.3年이었으며, 가장 빠른 年齡은 9歲, 가장 늦은 年齡은 18歲였고, 가장 많은 年齡은 14歲였다.

4. 1957~1961年 期間中 出生女學生이 1950~1954年 期間中 出生한 女學生보다 初潮平均年齡이 0.9年 빨랐으며, 이러한 差異는 6.25動亂이 該當期 乳兒發育에 影響을 미친 可能性을 推測케 하였다.

5. 初潮出現時期에서 가장 많은 달은 1957~1961年 期間中 出生한 女學生(20.7%)에서나 1950~1954年 期間中 出生한 女學生(19.9%)에 있어서 다같이 8月이었

으며 가장 적은 달은 前者에 있어서는 11月달(4.2%), 後者에 있어서는 6月달(3.4%)이었다. 또한 季節의 前者 35.7%, 後者 30.2%로 다같이 夏節期가 가장 많았고 秋節期가 가장 적었다(前者 18.8%, 後者 18.6%)

參 考 文 獻

1. 李氣春: 朝鮮人 女學生의 月經初潮에 對하여, 鮮滿之醫界, 第101號, 1923.
2. 朴容海: 地理的으로 본 朝鮮人 女學生의 初經來潮, 朝鮮醫學會雜誌, 第25卷, 第12號, 1935.
3. 金周成: 韓國女性의 月經에 關한 調査研究, 亞細亞女性研究,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p. 115-139, 1962.
4. 權彝赫, 朴淳永, 李容旭: 우리나라 女學生의 月經에 關한 調査研究, 人口論集, 7號 p101-113, 1968.
5. De Lee: *Principles of Practice of Obstetrics*. 5Ed., p. 16, 1928.
6. 山崎正薰: 日本帝國領土內의 日本, 아이누, 琉球及支那 四種族 婦人月經初發持續及閉止에 對하여, 醫學中央雜誌 第9卷, 第56號, 1908.
7. 川越武慶: 月經 特히 初潮와 地域과의 關係, 長崎醫學會雜誌, 第41卷, 第5號, p415-422, 1966.
8. 佐佐木直亮: 初潮發來에 미치는 因子에 關한한 觀察, 日本衛生學雜誌, 第23卷, 第3號, p. 329-331, 昭和 43. 1968.
9. 安藤畫一: 婦人月經에 關한 研究, *Encyclopedia Medicina Comtemporanea*. 12卷 *Gynecologie Toxicologie* 單行本 昭和 4年 春秋社刊,